

산학협력 이끄는 호남대

옵토파워(주)

광 온도센서 경쟁력 국내 최고

호남대학교의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하 산중사업단)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제품 기획에서부터 제작, 생산,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옵토파워(주)의 주력 제품인 '광 온도센서'는 호남대 산중사업단의 기술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산중사업단은 지난해 말부터 옵토파워(대표이사 김영수)를 위해 '광센서를 이용한 전력 수배전반 과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책임교수 황보승)' 개발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산중사업단의 신영석·손홍민·김광택·백영주 교수 등이 지원했다. 여기에 제품 금형 설계와 디자인 설계를 포함한 'Full package' 지원 사업을 양승화 단장과 정호재·김재준 교수가 각각 담당했다.

이 같은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광 온도센서'는 한국전기연구원(KERI) 배전반 규격 시험을 통과해 지난 11월16일 특허를 받았다. 특히 이 제품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 대한민국발명대전' 은상을 수상했다.

옵토파워의 주요 사업분야는 ▲광센서 장치 : 온도계측용(배전반·변압기), 전류·전압용, 배전반 내 전기 아크 감지 ▲광 진단 시스템 : 온도·전류 계측 및 경보 시스템, 다중 채널 계측 시그널 컨디셔너 등이다.

옵토파워는 자사의 광 온도센서 등 광 관련 제품이 열화 진단 시스템의 안정화와 과열 및 과부하로 인한 대형 전력 사고 방지 등의 성능이 외국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 동급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중기청·무역협회의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우수한 국외 전력 기기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판매도 계획 중이다.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전기협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력기기 제작 업체, 중전기 제작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수 옵토파워(주) 대표이사는 "호남대 산중사업단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 기술이 뒷받침된 제품을 개발·생산



호남대 산중사업단 교수와 연구원들이 옵토파워(주)의 광 센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획 회의를 하고 있다.



호남대 산중사업단의 광센서 제품 기술지원 과정과 최종 생산품.

산중사업단 우수기술 뒷받침된 제품 개발

산학협력체제 구축으로 인적 교류도 확대

하고 있다"면서 "광센서, 광진단 시스템 만큼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대비 가격도 저렴해 국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호남대 산중사업단과 옵토파워의 협력은 대학 및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술개발에 대학·산업체의 연구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정보 및 기술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결실 또한 컸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체만이 기술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연구원들도 현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실무능력이 향상됐다. 이를 통해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을 산업체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호남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2단계)'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10년도 중소기업 직업훈련전소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 대학대상' 선정에서 '산학협력대상'을 수상했다.

이를 증명하듯 호남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체, 즉 가족회사가 무려 300곳에 달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광여고 '한빛축전' 대광여고의 '한빛축전'이 지난 30일 광주 남구 학교 내에서 개막한 가운데 학생, 학부모,교직원들이 전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5일까지 진행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영대·조선간호대·전남과학대·기독교간호대·광주보건대

간호과 신입생 4년제 과정 선발

서영대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전문대학이 내년부터 간호과의 신입생을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33개 전문대에 간호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해 2012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해당 대학은 서영대학, 조

신간호대학, 전남과학대학, 기독교간호대학, 광주보건대학 등이다.

서영대학 등은 15개대는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또 33개 대학 중 군산간호대학 등 15개대는 2011학년도 간호과 3학년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들이 내년 4학년도로 진급해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지원되는 간호과 학생수 만큼 타 과 및 간호과의 정원을 감축하지 못한 가톨릭장지대학 등 18개대는 정원 감축이 가능한 해부터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4년제 과정 설치 대학은 38개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 학과운영 및 교육과정(22개 항목) 등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시험

광주대 대체의학과 3명 합격

광주대 대체의학과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국가 공인 아로마테라피스트(Aromatherapist) 양성 기관으로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아로마테라피스트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후각이나 피부 등을 통해 흡수시켜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람을 이른다. 근래 아로마테라피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자연치료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덕여대에서 미국 아로마테라피 등 특위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시험에 대체의학과 3학년 선영일, 김나정, 윤주영 학생이 합격했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전국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전공하거나 아로마테라피 관련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람들이 대거 응시했으며, 불과 9명만 자격증을 취득했다.

광주대는 지난해에도 지방대 가운데 드물게 전국 13명의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시험 합격자 중 1명을 배출해 주목받은 데 이어, 올해는 단일 대학 및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온라인 강좌 인기

이틀만에 수강생 800명 몰려

전남대가 올 겨울 계절학기에 처음으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이틀만에 수강생 800명이 몰리는 기록을 세웠다.

대학 교무처는 201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서양복식사' 교과목(담당 의류학과 배수정 교수)을 개설해 최근 수강신청을 받았다.

'서양복식사'는 전남대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발한 50여 개의 e콘텐츠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의로 이를 담당하는 배수정 교수는 한국가상캠퍼스에서 베스트 티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온라인 강좌는 수강신청 이틀만에 수강생이 800명을 넘어선 인기 강좌 1순위로 자리매김했다. 수강생 숫자 제한이 없고 강의 및 수강, 질문과 응답, 과제부여 및 제출 등 모든 수업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특징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송경안 교무처장은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된 100% 이러닝(e-learning)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해 온라인으로 학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Be happy

www.aliotv.kr

알리오TV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개념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그룹을 특별한 공간 즉, 플랫폼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며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원하는 기업체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신문지면과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소비자와 각 기업체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마케팅도움이 되겠습니다!**

ADEC

(주)아데크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5층 TEL: 062-233-5111(내), FAX: 062-234-5113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88번지 문정빌딩 701호 TEL: 02-756-6733, FAX: 02-2179-7982